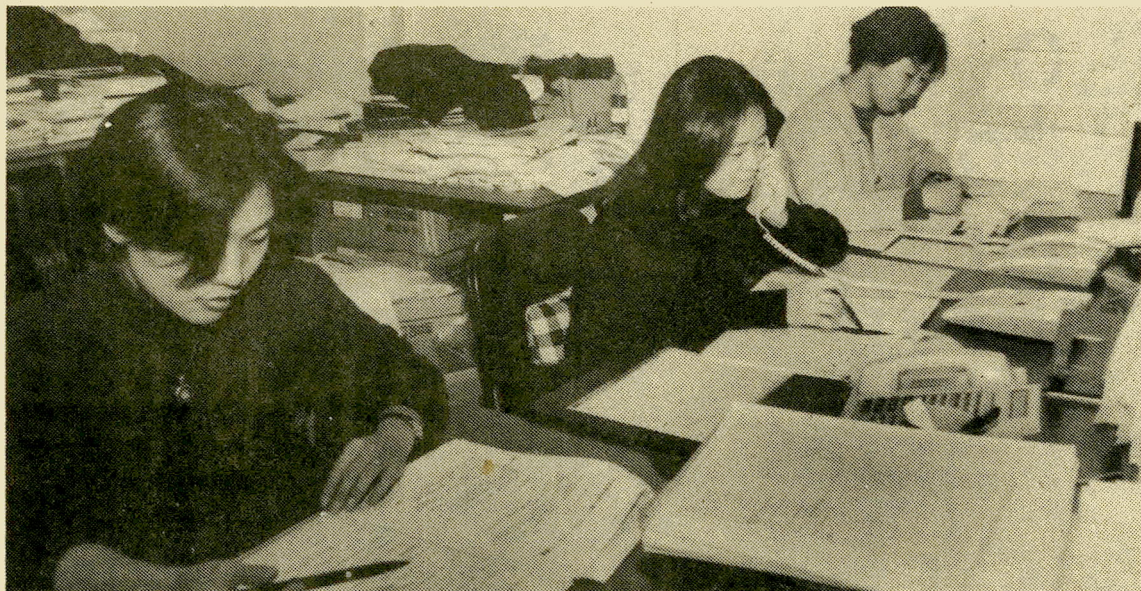




직장여성들이 성차별의 사회구조에서 제대로 평가받으려면 오로지 실력을 키워 정면승부하라는 '공격적 성공요령'을 일러주는 책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윤운식 기자

직장여성 정면승부하라

맹렬여성 성공지침서 잇따라... 수세적 처세론 박차고 실력·투쟁정신 강조

이병학 기자

요즘 여성인력의 사회 진출이 크게 늘고 있으나 성차별 관행이 뿌리깊은 남성중심의 일터에서 여성들이 이를 극복하려면 '실력'으로 정면도전해야 한다는 주장을 담은 책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이런 '직장여성 성공 지침서'들은 기존의 책들과는 달리 우리 사회현실에 온몸으로 맞서 견디면서 나름대로 '성공전략'을 터득한 맹렬여성들의 체험적 방법론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는 지난 70~80년대의 '직장여성의 생활예절' 류나 '직장의 꽃'으로서 기능해온 여성의 '직장 상사 모시는 방법' 따위를 열거한 수세적 처세론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여성들에게 '직장여성'이 아닌 '직장인'으로서 공평한 경쟁의 출발선에 서려면 기존의 차별관행을 송두리째 부수고 스스로 설자리를 확보하라고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일본은 없다〉의 전여욱씨가 최근 펴낸 〈여성이어, 테러리스트가 돼라〉(푸

른숲)는 공세적인 내용의 직장여성들의 생존전략을 담고 있다. 전씨가 이 책에서 '정보·시간 관리의 노하우' '직장생활의 노하우' '인격형성의 노하우' '능력개발의 노하우' 등 네 부문으로 나누어 제시하는 '성공하는 여성의 40가지 노하우'는 자신이 남성중심 직장의 '냉대와 질서'에 도전해 오며 겪은 생생한 사례를 곁들였다. 그는 여기서 '일간지와 월간지를 두가지 이상씩 구독할 것' '두개 이상 외국어를 마스터할 것' '두가지 이상의 운동을 할 것'을 권하면서 '일 중독자가 되어라' '자신의 능력을 알려라' '누구에게나 친절하라'는 충고와 함께, '여성 네트워크를 만들어라' '모범적인 직장선배가 되어라' 등 남성중심 사회구조를 허물기 위해서 여성들이 한데 뭉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최근 한국광고주협회 홍보부장 박효신씨가 '직장여성의 성공을 위한 10계명'을 담아 펴내 관심을 끌었던 〈자, 이제 여성시대 엔터키를 치자!〉(여성신문사) 역시 '기본기를 다지고' '끊임없이 공부하여' '실력으로 경쟁할 것' 등 남성

중심 사회에 적극적인 방법으로 대응할 것을 제시한 책이다.

지난 4월 출판기획전문가 김경희씨가 펴낸 〈여자들이여, 전문가가 되자〉(삼성서적)도 직장여성이 '내 삶의 주인공'이 되고 '당당하게 대접받으려면' 투철한 직업의식과 투쟁정신을 바탕으로 여성에 대한 편견을 극복해야 한다는 내용의 요령을 담고 있다.

이밖에 직장여성의 적극적 처세를 주장한 책들로 〈강한 여자 만들기〉(소나프리드먼 지음·전민식 옮김, 서림문화사), 〈여자가 출세를 하면 안되나요〉(베티 하라강 지음·임우신 옮김, 하서출판사), 〈성공하는 여성은 인맥으로 승부한다〉(미다케 히로코 지음·김순복 옮김·언어문화사) 등 10여종의 번역서들이 나와 있다. 이런 추세에 대해 한국여성단체연합 근로여성부 오순옥 간사는 "이 책들이 여성들의 직업의식을 드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남녀고용평등법 등 성차별 관련 문제에 대한 교육도 여성이 직장을 갖기 전 학교수업에서 이뤄져야 마땅하다"고 말했다.